

육계 파동과

- ◆ 최근 우리나라 양계업계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하여 유래없는 가격으로 ◆
- ◆ 거래되어 수많은 양계인이 도산을 하거나 도산직전에서 허덕이고 있다 ◆
- ◆ 이러한 악순환은 거의 예외없이 생산과 소비의 부조화속에서 파생되거 ◆
- ◆ 나 국내 전체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생산물의 체화등으로 인하여 일어 ◆
- ◆ 나는 것으로 이번의 육계가격폭락으로 인하여 각 생산자단체나 업계의 ◆
- ◆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질적 악순환을 뿌리뽑기 위하여 많 ◆
- ◆ 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번 파동의 전말을 알아 보고 그에 대한 대책 ◆
- ◆ 을 우리 나라름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

◆ 부로일러 업자의 40%가 도산

우선 그 동안의 상황을 알아보면 지난 1971년 9월말부터 서울·경기지방에서는 생체중 kg당 평균 200원에 거래되고 있던 부로일러는 10월초에 17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10월 20일경부터는 kg 당 150~140원까지 하락되어 이 경기는 1971년 12월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약 3개월간에 걸친 육계파동으로 본회의 추산에 의하면 약 40%의 부로일러업자가 도산하였으며 나머지 업자들도 도산직전에서 허덕였다. 더구나 이에 따르는 산란도태계의 처리는 전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결국 체화되는 도태계의 산란에 의한 달걀도 증가되어 업계의 불경기는 갈수록 심각하였졌으나 그동안 거의 부화나 육추를 하지 않은 까닭에 1972년 1월 4일부터는 부로일러가 품귀현상을 보여 생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산과 수요의 부조화현상을 나타내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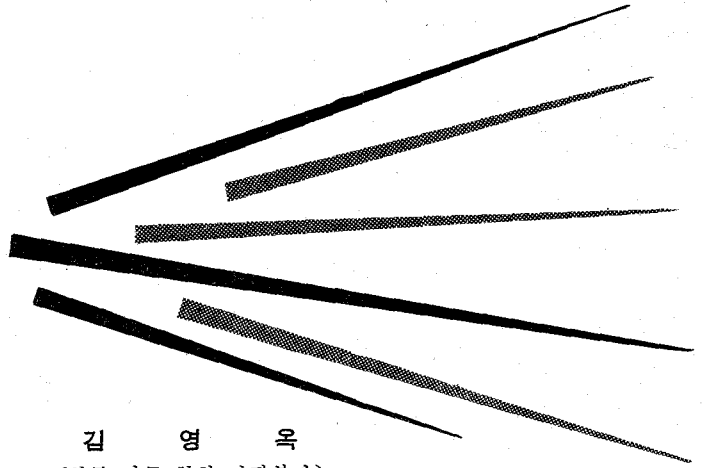
것은 다음의 가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71년 12월 28일의 서울지방의 육계가격을 보면 생체중 kg 당 180원에서 1972년 1월 4일은 190~200원, 1월 10일에는 220~230원까지 단기간에 뛰어 올랐으며, 산란도태계 역시 kg 당 130원에서 1월 10일경에는 180원까지 상승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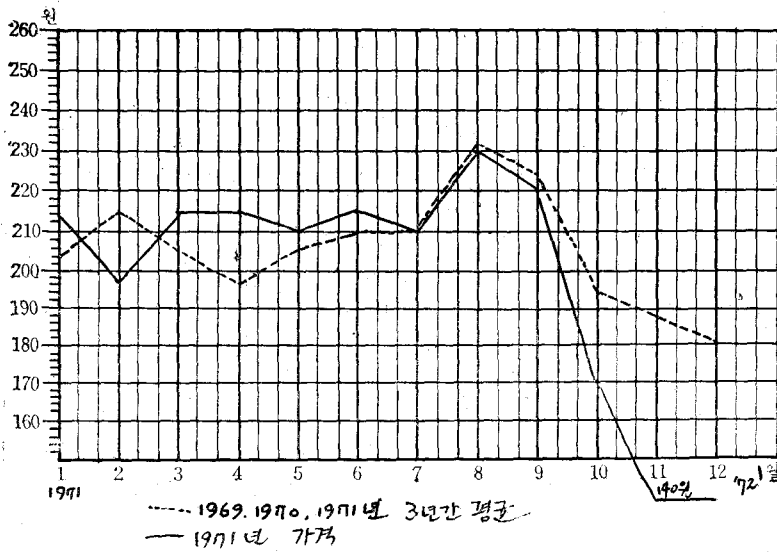
앞으로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이겠으나 이번의 육계파동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쓴 교훈이다. 즉 생산물가격이 높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곧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곧 닥아 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하락의 시기는 생산물가격이 높던 시기에 비해 장기적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망각하여 계속하여 경기가 좋던 시기만 생각하고 생산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번의 파동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될 뿐인 것이다.

생산 조정



김 영 옥
(한국 가금 협회 편집부장)



◆ 부르일러 가격의 추세

그러면 이번 파동을 전후하여 예년도의 가격과 금번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알아 보자. 아래의 가격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71년의 3월부터 7월까지의 부르일러가격은 지난 3년간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높았었다. 꽤 호조를 보이는 3월부터 7월까지의 가격이 많은 부르일러 업자들에게 생산을 확장하게 하였으며 각 부화장들도 계속하여 병아리생산에 힘썼다. 그 결과 7월의 병

부 로 일 러 가 격

(한국가금협회조사 전용종 원/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1 9 6 9	195	236	200	181	222	220	232	238	230	206	196	184	211.7
1 9 7 0	196	210	200	192	183	195	188	226	225	207	231	193	203.3
1 9 7 1	224	196	215	215	210	215	210	230	220	170	140	150	199.5
평 균	205	214	205	196	205	210	210	231	225	194	189	180	205.3
지 수	99.9	104.2	99.9	95.5	99.9	102.3	102.3	112.0	109.6	94.5	92.6	87.6	100

아리 생산은 엄청나게 많았으며 그 파문은 2개월 후인 9월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8월에 병아리생산이 퍼크를 이룬채 9월까지 과다 생산이 계속되었으므로 11월의 육계가격은 140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서울·경기 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부로일러 가격은 서울과 같지 않았던 것을 보면 서울시 근교에 대군업자의 집합이 너무 많았다는 것과 또한 서울의 가격이 전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 30일의 원주·강릉지방은 kg 당 200원, 부산지방도 200원), 이상의 가격동향에서 우리 양계인은 년중의 가격동향과 앞으로의 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병아리 생산이 많은 달은 꼭 2개월후의 결과를 예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번의 육계파동을 겪으면서 양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얘기는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것이었다. 우리가 도산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뭔가?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다. 망하면서 망한 원인도 모른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앞사람의 실패가 뒷사람의 사업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캐어보고 그것을 거울삼지 않으면 항상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계의 얘기를 들어보자!

육계가격의 하락원인을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시장상황에서 분석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는 11월중 닭고기의 1일 소비량을 5만수로 추정했는데 실제 소비량은 20-30%가 감소된 수준이었다. 이는 뚜렷한 구매력의 감소이며 「달러」 인하, 「엔」의 평가절상등도 업계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 본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배합사료의 생산량으로 추정해본 생산과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70년의 부로일러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었으니 70년도 배합사료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71년도는 8월, 9월이 10,000톤, 11,000톤으로 70년에 비하여 약 5,000~6,000톤이 더 생산이 되었으며

로 이로 미루어 보아 부로일러의 생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서울시 황인옥 축산계장)

이번 육계파동의 주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여 생산과잉이었다. 그것은 사료협회에서 집계 사료생산량에 의한 추정방법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0년도 1월 부로일러용 배합사료의 량이 3,000톤이며, 6월이 최고로 9,000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차차 하락을 보여 8월은 6,500톤, 9월이 5,500톤, 10월이 5,000톤, 11월이 5,000톤, 12월이 5,500톤인데 반하여 71년도의 사료생산량은 1월이 4,000톤이며 3월이 6,000톤, 6월이 10,000톤 7월이 10,000톤으로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니 8월이 70년도의 6,000톤에 비해 1,000톤으로 약 4,000톤이 증가되었으며, 9월 역시 같은 추세이면 10월에 이르러 8,000톤 생산으로 약간 하락되었으므로 결국 사료 3,000~4,000톤을 더 먹을 만큼의 부로일러가 70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한국사료협회 유 윤수 부회장).

이번 파동이 생산과잉이 주 원인이었다는 또한 나의 의견을 들어보자.

육계용 병아리 생산과잉이 주 원인이었다고 본다. 육계용 초생추 생산실적을 보면 71년도의 1월에 220만수, 2월이 270만수, 3월이 340만수, 4월이 370만수, 5월이 430만수, 6월이 390만수, 7월이 360만수, 8월이 260만수, 9월이 270만수 10월이 265만수로서 8,9,10월이 예년과 비교하여 보면 예년의 적정수를 8월이 150만수, 9월이 200만수라고 추정한다면 71년에는 적정수량보다 8월이 100만수의 과잉생산이 된것으로 이들이 육계파동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한국 부화협회 이계조 회장)

또 한 생산과잉이 주 원인이 되었겠지만 국내 전반적인 경기저조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소비성향이 억제되므로 인한 구매력 감소도 크게 작용을 하였다. 아직도 달걀과 닭고기가 국민의 주식 이 되지 못하고 사치성식품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전반적인 불경기가 비 수요기에 편승하여, 생산과잉과 더불어 「육계가격의 폭락을 부채질 하였다」고 본다.(한국 가금협회 송 정택 전무이사)

이상의 원인분석을 들어보면 **부로일러의 과잉 생산과 구매력감소**가 이번 육계파동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 대책

◆ 각 관계기관—무얼 하고 있었나?

육계의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동안 당국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가? 또 그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를 견우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양계인의 큰 관심사이다. 최소한 이번 육계가격의 하락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조금이라도 빨리 양계인들에게 알려졌더라면 일부는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맨 처음 육계파동을 위한 대책협회가 열린것은 1971년 11월 5일이였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에서는 아무 결론을 얻지 못하고 2차 협의회를 11월 8일 다시 가졌으나 소비중대방안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주최자측의 「정부의 수매자금 활용 방안, 소비기금모집, 국군에 닭고기보내기 운동」 등, 실효성이 적은 제안등이 많아 결국 육계파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정도로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참석자 : 김권철(농림부 축산과) 김사백(농림부 축정과) 김진선(양계인) 유윤수(사료협회) 유용선(서울시 축협) 이계조(부화 협회) 이필용(가금 협회) 임병규(동신종축장) 조희찬(영육농장) 최상진(조일부회장) 한화섭(동물약품협회) 황인옥(서울시 농정과) 김중곤(현대양계)

◆ 한국부화협회—초생추 생산조사

이번의 육계파동이 부화업자들의 무분별한 초생추생산의 파다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통감한 한국부화협회에서는 1972년의 사업에 초생추생산 조절사업을 계획하고 초생추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초생추의 덤핑과 일부 불량 병아리의 생산을 억제시키기로 하였다. 1971년 12월 31일 우선 초생추 생산 조절사업의 첫걸음으로 자체내 생산조절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고자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인사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참석자 : 김영진(농림부 축산국장) 유윤수(한국사료협회 부회장) 송정택(한국가금협회 전무이사) 이계조(한국 부화협회장) 최병인(농림부낙농과장) 허종관(농림부 축산과장) 이광휘(농림부 중소가축계장) 김영남(농림부 축산과) 정성준(농림부 축산과) 최상진(조일부회장 사장) 장용식(유축농업 연구소장) 조민구(한국 세이버 협회) 김상곤(인산농원 제 1농장장)

이 자리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초생추 생산 조절사업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초생추 생산조절 사업계획(안)

1. 취지 및 목적

장기간 불황으로 말미암아 이업에 종사하는(부로일러업자, 산란계업자, 부화업자, 사료업자) 모든 업자들이 생산가 이하의 거래로 도산 일보전에 놓이게 되었다. 불황의 연속을 막기위해 산란계 부로일러의 생산을 중지하고자 한다.

부로일러의 생산가격이 생체 kg 당 190원인데 반하여 160원 이하로 시장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출하가 원활치 못하여 부로일러업은 도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로일러의 현상은 곧 채란업에 영향을 미쳐 노계는 판매 처분의 길이 막혔고 40%이하의 산란을 하는 닭도 그대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채란업자도 불실경영을 면치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적된 노계의 산란은 난가를 생산가 이하로 장기간 지속시키고 있는 직접 간접의 원인이 되어 앞으로 더욱 더 흐린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로일러와 채란업자의 고통은 결국 사료업자의 장기 외상거래로 일어나는 경영적 고민과 연결되어 현재 양계 및 그 관련업자는 모종의 과감한 타개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부화협회회원은 각자가 내가 좀 희생하여 여러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초생추의 생산제한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1972년 1월 15일부터 입난을 중지하여 제화된 부로일러및 노계를 처분 판매하여 불실경영을 면하도록 하자는 취지아래 농림당국과 각계 각층에 협조를 얻어 초생추 생산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2. 입란 중지기간

1월 15일부터 본회 생산조절 위원회의 결정한 시일까지로 한다.

3. 입란 중지대상

- 가. 국립 및 도립 시험장 종축장
- 나. 축협부화장
- 다. 전국부화업자

4. 생산조절방안

- 가. 국립 및 도립 시험장 종축장, 축협부화장은 단 G.P.S에서 P.S 생산은 제외한다.
농림부지시에 따른다.
- 나. 부화협회 회원 부화장은 본회 지시에 따른다.
- 다. 비회원 부화장은 행정당국이 이해설득으로 실행케 한다.

5. 감시방법

- 가. 전국부화업자가 상호간 감시한다.
- 나. 감시조사반을 본회 회장이 각 시, 도별로 2명씩 위촉한다.
- 다. 감시조사반 활동기간은 1월 15일부터 본회 지시기간까지 감시 조사한다.
- 라. 조사반은 각 부화장에서 입란상황, 검란, 기타를 조사한다.
- 아. 국립, 도립 축협 등 부화장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본회 감시조사위원이 조사한다.
- 바. 감시 조사방법은 타 도를 조사한다.

6. 계몽방법

- 가. 계몽지도반 편성
 - 사료협회 5명
 - 가금협회 5명
 - 부화협회 5명
 - 계 15명
 - 나. 각 구역별조직
 - 중앙본부 3명
- 제1반 : 서울·경기, 사료협회·가금협회·부화협회 각 1명씩 3명.
- 제2반 : 강원·충북·충남, 사료협회·가금협회·부화협회 각 1명씩 3명
- 제3반 : 전북·전남, 각 협회 3명

제4반 : 경북·부산·경남, 각 협회 3명

다. 계몽 지도기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라. 계몽지도 방법은 생산 조절사업 취지를 각 부화장에 출장하여 실행하도록 이해설득시킨다.

마. 여비는 각각 그 단체에서 부담한다.

7. 제재방법

입란중지를 위반한 부화장은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가. 국립 도립 축협부화장은 행정당국에서 행정조치한다.

나. 본회 회원은 제명한다.

다. 농림부에서는 도입계의 수입을 금지시킨다

라. GPS 농장은 PS를 분양하지 않는다.

마. GPS 농장이 위반한 자에게 PS를 분양하였을 때에는 GPS 도입을 농림부가 금지한다.

바. 비 회원 및 회원 제명된자는 법으로 부화업을 못하게 한다.

사. 위반한 자는 양계잡지에 광고한다.

아. 종란의 매매도 하지 못한다.

이상의 안은 참석자들에 의하여 장시간 토의되었다.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즉,

1) 과거 부화업계의 초생추협정가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실정에서 뿌리깊은 불신감이 있으므로 시행이 잘 될 것인가의 여부.

2) 병아리의 수요기를 맞아(1. 2월) 장기간 입란중지는 곤란하다.

3) 만일 위반부화장이 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회박하다.

4) 대규모 부화장은 가능하겠지만 당장 식생활이 곤란한 군소부화업자(부화기보유 1~2대)의 생계문제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는가.

5) 병아리판매가 불가능하여 그동안 자체조절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생산조절의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이상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나 각 단체의 협조와 주취자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농림부당국에서도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기로 결정하고 1972년 1월 6일 계몽반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짓고 휴회하였다.

참고로 부화협회에서 각 협회에 협조요망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가금협회에 요망사항

「부로일러 초생추 생산증지의 기간중 귀회 회원이 초생추를 구입하지 않도록 계몽선전하여 주시고 체화된 노계를 그 기간중에 판매토록 하여 주시고 만일 기간중에 위반하는 업자가 있을 때에는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료협회에 요망사항

「초생추생산조절사업으로 사료생산에 약간의 차질이 생기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협회 회원도 1억원 이상의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오니 각별한 협조를 부탁하오며 위약한 자에게 앞으로 사료불공급등의 조치와 이 기간중에 위약자는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972년 1월 6일 한국부화협회 회의실에서 계몽반편성을 위하여 모였던 관계자들은 1월 4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부로일러가격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한 후 생산조절사업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부화협회에서 각 단체에 보낸 통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최근 서울 육계시세가 갑자기 호전되는 경향이 있어 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입란증지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하여 이번 육계 파동과 한국부화협회의 초생추조절사업은 일단 무기한 보류되었다. 이번의 사업은 그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산자들의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처음 기회였었던 만큼 각계의 반향은 컸었다. 「파언 잘 될까?」 하는 회의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단합된 힘을 보이고 생산자들이 단합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하간 생산조절사업이 포기된게 아니고 일단 보류된 만큼 다시 사업을 수행하려 할때는 전 생산자들이 사심없이 단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행될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각 생산인이 깊이 인식하여 단결된 마음으로 수행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 한국사료협회—일선장병에 닭고기 전달

한국사료협회에서는 체화된 닭고기의 소비와 아울러 신년을 맞이하여 국군의 위문품으로 체화된 부로일러 10,000kg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회원의 모금으로 부로일러 10,000kg을 구입하여 육군 제7209부대(부대장 안중훈 장군)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선장병 위문품(닭고기) 전달의뢰」

1. 폐 한국사료협회 회원 일동은 혹한에도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다스나마 보답하고자 아래와 같이 닭고기를 보내기로 하였오니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문품(닭고기) 보내기 운동

취지 : 혹한에도 국토방위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일선장병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함에 있음.

품 명 : 냉동 닭고기

수 량 : 10,700kg(약 10,000수)

인도기간 : 1971. 12. 27-28(양일간)

(국방부에서 인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장소 : 인산농원 주식회사(시내 영등포구등촌동 203-1)

수 량 : 5,350kg(20kg드리 267.5상자)

영육농장 도계장(시내 등대문구 망우동 151)

수 량 : 5,350kg(20kg드리 267.5상자)

전달희망처 : 최전선에서 국토 방위에 수고하는 국군장병

인도방법 : 국방부의 결정에 의함(단 폐 협회회원의 일선 장병위문을 주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음)

연락장소 : 한국사료협회

한편 닭고기 1,0000kg을 위문품으로 받은 육군 제7209부대에서는 한국사료협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므로써 전선과 후방을 잇는 흐뭇한 유대를 가졌다.

◆ 한국가금협회—입추조절통보와 사
료가격 인하 건의

한국가금협회에서는 정부 및 각 단체와 수차에 걸쳐 그 대책을 논의하던중 부화협회의 초생추생 산조절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계몽반의 파견과 함께 전국의 한국가금협회 회원 및 양계인에게 기간중 입추의 조절과 생산중지 기간중에 부화를 하는 업자를 고발해 줄 것을 호소하는 통보문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생산조절사업의 중지로 이 통보는 발송되지 못하였고 이번 육계파동의 대책을 위해 이번의 쓴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닭고기 및 달걀의 출하조절의 결성에 대하여 연구검토중이며, 지난 수년간 「월간양계」지의 권두언과 기타 지면을 통하여 도입제의 과다수입이 어떠한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와같은 현상을 초래하였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표명하였다. 이번의 자체조절을 하기에 앞서 병아리의 도입과정에서부터 조절이 되었다라면 이번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 더 이상 양계인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입추수수를 양계인 스스로가 자체조절하여야 하며, 당장 시급한 문제로 생산비의 절감을 위하여 사료비의 가격인하를 당국에 건의하였다. 여기 그 건의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계용 배합사료가격 인하에 관한 건의」

1. 현하 양계업체는 근년에 없던 불황으로 본회에서 추진한 바에 의하면 업체의 약 40% 정도가 이미 도산되었으며 현재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양계인들도 거의 도산직전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바 현 유통상황을 보면 제란(대란) 1개에 생산원가 11.98원에 미달하는 9.5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부로일러(육계)는 kg당 생산원가가 210원인

데도 불구하고 15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1971. 12. 22일 현재) 더구나 체화되어 있는 산란용 도태계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여서 양계인들의 도산은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지어야 하며 모처럼 육성하여 온 한국 축산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양계업체의 발전은 일조에 와해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 이의 타개책으로는 정책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양계산물 안정기금의 설립, 양계산물의 소비시장 확대등 여러가지 장기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나 우선 실현가능하며 시급한 대책으로서 생산비의 절감이라 하겠습니다.

3. 양계산물의 생산비 구성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는(산란계 60%, 부로일러 80%) 대부분이 외국에서 도입하는 실정인바(70~90%) 이 원료사료들은 원산지의 가격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배합사료중 배합비를 6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는 사료가격을 좌우하는 요건으로서 지난 2년간의 옥수수가격과 배합사료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69년도	1970년도	1971년도 전반기	1971년도 후반기
옥 수 수	67.38\$/㎏	72.80\$/㎏	75.92\$/㎏	60\$/㎏
산란사료	32원	35원	37원	41원
부로일러 사 료	40 "	42 "	44.50 "	48.50 "

이상의 표에서 보면 옥수수의 원료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사료가격은 인상되었으며 특히 지난 1971년 7월 16일의 환율인상을 이유로 하여서는 환율인상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환율인상 13%, 사료가격인상 10%) 가격의 인상을 실시하였으나

그러나 1971년 후반기를 대비하여 보면 옥수수의 가격은 동년 전반기에 비하여 톤당 약 15\$이 인하되었으나 배합사료의 가격은 약 10,000톤의

원료사료명	배합량	원가형성에 차지하는 비율	종전가격	현재가격	변동액	원료비 변동율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옥 수 수	61%	47.6%	75\$/㎏	60\$/㎏	-15\$/㎏	20%	9.52%
대 두 박	10%	11.4%	45원/kg	50원/kg	+5원/kg	11.1%	1.27%

인하시킬 수 있는 율 8.25%

고가인 국산 옥수수 사용과(도입 옥수수 톤당 28,000원 국산옥수수 톤당 약 52,000원) 고가의 국산대두박의 사용을(kg당 외국대두박 45원, 국산대두박 50원) 이유로 하여 서울시 축협을 제외한 나머지 사료업체에서는 현 사료가격을 인하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4. 본 회에서 추산하여 본 바에 의하면 원료사료가격의 인하로 인하여 인하시킬 수 있는 배합사료의 가격은 대두박 가격인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약 8.25%정도 인하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산란계 특호의 경우)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가격의 인하는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며 1971. 12. 16일 서울시 축협에서는 사료가격을 25kg 1포당

초생추사료 1,120원에서 1,040원으로

산란계사료 985원에서 915원으로

부로인러사료 1,230원에서 1,110원으로 인하시켰으며 나머지 사료업체도 8% 내외에서 가격의 인하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사료업체가 주장하는 국산 옥수수의 사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10,000톤이므로 전체 옥수수사용량에 비하면 약 1/40~1/50밖에 되지 않으므로 미미한 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읍니다.

5. 더구나 당국에서 한국사료협회에 배당한 옥수수 1만톤은 도입 옥수수에 비하여 약 2배의 가격이며 이것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결국 양계인이며 농민이 생산한 고가의 옥수수를 결국 농민인 양계인이 사용하므로 농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를 공업용으로 전환시키던지 혹은 국산 옥수수의 도입 옥수수와와의 차액은 당국에서 평준화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하에서 더욱 더 전체를 거둬주는 양계업체를 구하기 위하여는 당국에서 국산 옥수수에 대한 공업용의 전환이나 또는 도입 옥수수와와의 가격평준화와 현행사료가격의 시급한 인하를 건의합니다.

이상이 한국가금협회에서 농림부장관, 서울시 장등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이번의 육계가격과동중 한국가금협회는 우리 양계인이 다시 이번과 같은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단결해야하며 시장 정보에 밝아야겠고 월간지에 실리는 병아리 도입

현황, 초생추생산현황, 사료생산현황등의 통계를 주시하며 각각 자기의 양계를 설계하면서 시장시세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번의 생산조절사업을 중단한 뒤 일부지방에서는 앞으로 병아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당장 부로일터의 가격이 높으니 양계인이 떠나없이 육용계 병아리를 구입하려고 야단이라고 한다. 덕분에 1971년 1월 6일경에 각 부화장마다 능력이 있는대로 전부 입란을 시킨 모양이다. 만일 이 병아리가 1월 30일에 나온다 하면 2개월 후인 3월 30일에는 이번의 육계파동과 꼭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문제는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양계인 자신의 것이다. 설령 어느 부화장에서, 또는 어느 사료판매자가 3월이후의 닭고기나 달걀값이 좋은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때 가격이 나쁘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자. 마치 살얼음위를 밟는 기분으로 자기의 역량껏 무리한 경영을 하지 말자.

그러나 이번의 대책 논의중에 얻어진 가장 큰 수확중의 하나는 행정부당국이 우리 양계인에 보여준 성실한 자세라 할 수 있겠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의 대책논의중에는 농림부의 김영진 축산국장이하 각 관계자들이 양계인의 외침에 성실하게 귀을 기울였고 양계인의 편에 서서 우리와 아픔을 같이 느끼며 이를 타개하려고 무척 애를 썼었다.

이와같은 당국의 노력에 전양계인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본 원고를 마치면서

이번의 육계파동과 생산조절에 관한 원고는 조절사업이 중간에 중지가 되었으니까 게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얘기도 있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고 있을 전국의 양계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첩경일 것 같아서 게재하였다. 본고는 될 수 있는대로 사건의 경과를 시일에 따라서 지체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시 기록도중에 누락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